

한국인의 삶 깃든 한옥...영암, ‘한옥문화 비엔날레’ 대장정

16일까지 영암목재문화체험장 일원서 개최

이이남 작가 미디어 아트 등 25명 작품 전시

영암군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가 개막. 오는 16일까지 영암목재문화체험장과 구림마을 일원에서 진행된다.

전남도 주최, 국토교통부와 (사)한옥건축학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는 ‘집은 집 : 달빛 아래 한옥’이다.

‘한옥은 집’이라는 본질에서 출발해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에 깃든 한옥의 가치와 활용법을 비엔날레에서 제시한다.

집의 본질적 의미를 되찾기 위해 비엔날레는 지역 작가·예술가 작품 전시, 명사

토크콘서트, 국제학술토론, 한옥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은 한옥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를 재해석한 ‘흐름’과 ‘관계’의 미학에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건축을 넘어 우리 자산인 한옥을 더 기품 있고 맛깔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전파하는 장으로, 전통과 현대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고 한옥의 정체성을 새로운 문화로 제시하는 실험 무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비엔날레 주제를 표현한 주제전에서는 한옥이 거주 공간을 넘어 한국인의 삶과 정신, 미학을 담은 문화 상징으로 확장

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전시에서는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 등 25명 작가의 70여 점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제1관 ‘한옥에 들다’에서 제9관 ‘한옥, 온기를 품다’까지 관람하면 한옥에서 생활한 한국인과 공동체의 감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구림한옥스테이에서 열리는 특별전시는 ‘유니크한 한옥(Flowing Hanok)’을 주제로 구림 한옥스테이에서 국내 유명 작가들이 각기 다른 주제와 재료, 감성으로 한옥과 어우러지는 작품을 제시한다.

우승희 군수는 “이번 비엔날레는 한옥의 감성을 일상으로 당기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이다”며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문화 브랜드로 한옥문화 비엔날레가 자리 잡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영암군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가 오는 16일까지 영암목재문화체험장과 구림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가을은 짧지만 사진 속 추억은 영원히 있다.

제10회 강진만 출주는 갈대축제가 2일까지 강진만생태공원에서 열린 가문대 생태공원에 마련된 국화꽃정원에서 관광객들이 가을을 맘껏 즐기고 사진촬영=강진군

강진, ‘연고산업 육성’ 지방소멸 위기 돌파

전남TP·전남바이오진흥원 협력
54억 지원...25개 기업 성장 견인

강진군이 지역의 대표 자원인 짚귀리를 중심으로 한 연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전남테크노파크와 전남바이오진흥원이 협력하는 ‘지방소멸 대응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 25개사를 대상으로 38개 과제, 총 54억원 규모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행정·기술·산업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뤘다. 이는 구상이다.

특히 참여 기업들의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호령농원은 사업 지원을 통해 할랄 인증을 획득해 중동 수출의 길을 열었고, ㈜남도농산과 민음영농조합법인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열린 ‘2025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해 총 7건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추가 연계사업을 통해 8개 기업이 17억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성장에 가속도를 붙였다.

이번 사업은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업 성장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술지도와 시제품 제작, 수출판로 개척 뿐 아니라 현장밀착형 기술지원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아우르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산업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대표 사례로, 강진군의 핵심 전략사업이다”며 “강진의 전통과 첨단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바이오진흥원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2026년 상반기 사업참여 자 모집공고를 통해 2차 사업을 추진하며, 총 예산은 18억6000만원이다. 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562) 또는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061-430-3062)에 문의하면 된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해남교육재단, 474명에 장학증서 수여

4억5500만원 전달...만학도 장학금 등 맞춤형 지원

해남교육재단(이사장 명현관)은 최근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해남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서는 2025년 각 분야 해남군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학생 474명에게 총 4억5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수여식에는 장학생 대표 78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식전 공연으로 예체능 분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한국무용창작팀과 태권도 시범팀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올해 장학금 대상자는 성적우수 장학생 75명, 기능영재 장학생 30명, 희망장학생 71명, 예체능·과학 등 특기자 장학생 117명, 기타 장학생 10명 등이다.

특히 초등학교인정학교 만학도 23명에게 배움의 도전을 응원하는 장학

금과 타지역 전학, 지역사회공헌, 농어업인 육성, 꿈드림 등 50명에게도 맞춤형 장학금이 지원됐다. 대학생 98명에게도 생활지원금 성격의 장학금이 지원됐다.

명현관 군수는 “장학금은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해남군민 모두가 응원하는 증표다”며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해 해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남교육재단은 2025년 해남군 장학금 이외에도 귀뚜라미 문화재단 장학금, 송창영 아너소사이어티 장학금 등 외부 연계 장학금도 유치해 82명에게 5400만원의 장학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지역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썼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해남교육재단은 최근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해남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진도, ‘명품’ 곱창김 전국 첫 위판 시작

전국 최대 김 생산지 위상...‘위판액 1위 달성’ 목표

진도의 청정바다에서 자란 ‘명품 햇김’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고군면 원포 위판장과 화동위판장에서 물김의 첫 거래(위판)가 이뤄졌다. 가격은 한 포대(120kg) 기준으로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61만2000원으로 형성됐다.

올해는 9월 중순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았다가 10월 초 약 2주 동안 수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해 급격한 수온 변화를 겪으며 초기에 김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10월 중순부터 수온과 영양염이 회복세를 보여 11월부터는 김 생산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수 군수는 “진도는 지난해 13만 8863t을 생산해 2490억원의 거래 실적을 올려 ‘전국 1위 김 생산지’의 명성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진도 김의 품질을 향



상하고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김 생산의 안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 무포 설치, 김 양식용 활성 처리제 보급 등 10개 사업에 126억원을 투입해 김 생산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신안,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

시범사업 본격 시동...섬 주민 맞춤형 체계 구축

신안군은 지역사회 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통합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섬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조기에 발굴해 의료·돌봄 필요도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장기요양 등 다각적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역사회 돌봄 제도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를 비롯한 민간협력기관들과 월 2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돌봄사업 발굴,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 및 민간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읍·면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국민건강보험



신안군은 지역사회 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통합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단 무안신안지사 관계자들과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각종 행사 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전반에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군은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신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통합돌봄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